

Japan Weekly Digest

2012. 12. 15 ~ 2012. 12. 21

① 주간 경제 초점

- 아베 신정권 등장에 따른 영향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기업의 해외 M&A, 엔고로 최다기록 갱신
- 미쯔비시레이온, 한국 SK케미컬과 탄소섬유 사업제휴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주간 경제 초점 : 아베 신정권 등장에 따른 영향

-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둬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 아베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을 넘는 294석을 확보한 반면, 집권 민주당은 230석인 기존 의석 가운데 1/4에도 못 미치는 참패를 당함.

□ 경제정책, 어떻게 바뀔 것인가

- 디플레 탈출을 최우선 과제로
 - 26일 발족하는 아베 신정권은 디플레 탈출을 최우선과제로 설정, 일본경제의 재생을 정치권 주도로 추진할 방침임
 -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2012년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
 - 일본은행과 정책협정을 맺어, 소비자 물가상승율목표를 2%로 설정, 강도 높은 금융완화를 요구할 방침임
 - 기업 활력을 진작시키는 성장전략에 맞추어 3%이상의 명목성장을 목표
 - 자민당 아베총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경기악화를 피하기 위해 선거공약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할 방침임을 재천명
 -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긴급경제대책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년 1월 하순에 소집되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
 - 아베총재는 소비세 증세도 내년 4~6월의 상황을 보아 최종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어, 내년 봄 경기를 어디까지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경제·재정 운영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임
-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부활과 「일본경제재생본부」 신설
 -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자동차의 양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경제재정자문회의」와 내각에 신설하는 「일본경제재생본부」임
 - 자문회의는 민주당정권에서 폐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서, 경제전체의 성장전략이나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의 큰 틀을 굳히는 역할을 담당
 - 자문회의는 코이즈미정권 당시 정책결정의 사령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재생본부는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산업경쟁력회의와 국제경제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경영자 등 민간의 소리도 청취
 - 성장전략면에서는 민주당정권에서 잃어버린 50조엔의 국민소득을 탈환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명목 3%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총동원할 것임을 강조
 - 한편, 아베총재는 신정권 발족 후 적극적인 금융완화론자로 알려진 하마다 고우이치 예일대 교수를 경제담당 내각관방참여에 기용할 방침. 하마다씨를 자문회의나 재생본부에 수시로 배석시켜 경제정책의 브레인으로 활용한다는 안도 있음

<아베 신정권하에서 예상되는 주요 정책 변화>

외교안보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가능토록 헌법해석 수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 방위비 및 해상보안청 예산증액 검토
소비세	식료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을 검토 자동차·주택취득 시 세부담 경감
아동수당	민주당정권이 폐지한 연소부양공제 부활 수당은 축소가능성도 있음
교육비	3세부터 소학교취학까지 유아교육 무상화 검토 고교수업료 무상화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신설
연금	근로노동자의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을 재검토 후생연금의 파트타임노동자에도 적용확대
의료·간병	고액요양비의 상한(70세 미만의 일반적인 소득자로 월 약 8만엔)을 인하
생활보호	급부수준을 원칙 10%삭감 취업알선을 거절하는 경우 감액·정지도 가능
농가호별소득 보상	전국 일률적인 단가를 재검토, 야채·과수농가에도 확대 예산규모는 대폭 확대
학재개혁	소학교부터 대학까지 「6·3·3·4제」 재검토. 대학 9월입학 촉진
디플레·엔고 대책	일본은행과 정책협정을 체결, 2%의 물가상승목표를 설정 관민협조외채펀드 검토
원전	모든 원전에서 재가동 가부를 3년 이내에 결론 도출 10년 이내에 중장기 에너지전략
산업정책	산업경쟁력회의 신설, 첨단설비투자·연구개발 지원
TPP	성역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참가에 반대
지구온난화	민주당정권이 제시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감소한 온난화목표 삭감목표 재검토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2.12.17)

□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일관계

- 무엇보다도 아베의 외교안보 공약이 주변국들을 자극할 시대착오적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치의 우경화가 초래할 한일관계 악화와 동북아 평화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됨
-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같은 공약들은 하나같이 동북아 정세에 격랑을 일으킬 사안들임
- 또 아베 총재는 선거기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물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까지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영유권분쟁도 격화될 소지가 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시마네현이 조

례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격상시키고 센카쿠열도에 공무원을 상주시킬 방침임

- 한중일FTA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TPP에 대해 성역없는 관세철폐는 반대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자국 산업의 이해득실에 철저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전망됨
- 한·중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 경제관계 심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아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대국적 관점에서 일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짐
- 동북아 정세의 안정 여부는 아베 총재의 역사인식과 외교정책에 달려 있음.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내거나 우경화 공약이 현실화되는 경우 한중일 관계에 파란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로 대일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총선이전부터 아베총재의 금융완화 발언 등으로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엔화 가치가 84.40엔으로 최저로 떨어짐
- 더욱이 선거공약대로 일본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는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아베신조의 경제학)」를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엔화공급 증대에 따른 엔저행진이 가일층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엔화약세로 일본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본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철강 등이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마저 잠식할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파이낸셜타임즈에 의하면, 최근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경쟁으로 풍부해진 외화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원화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른 엔저·원고는 가뜩이나 글로벌침체에 빠져있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고전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아베노믹스 등 경기부양책으로 일본경제가 회복되는 경우 대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엔저로 인한 대일수출 감소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는 있을 것임
- 또 엔화 약세와 함께 법인세 감세 등 일본 내 투자환경개선에 주력하게 되면, 일본기업의 대한직접투자가 주춤할 가능성도 있음

② 산업통상전략

□ 금년 일본기업의 해외 M&A, 엔고로 최다기록 갱신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한층 확대되고 있음
 - 전년대비 10%증가한 500건에 달할 전망으로 버블기였던 1990년(463건)을 상회, 22년 만에 과거 최다 기록을 갱신
- M&A자문회사 레코프에 의하면, 12월 14일 시점에서 일본의 해외M&A건수는 489건으로 이미 2011년 수준을 34건 상회함
 - 금액기준으로는 작년에 비하여 8%증가한 6조 8,895억엔
 - 엔고로 엔화환산금액은 줄어들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과거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미국의 톰슨로이터에 의하면 국가별 매수기업으로는 일본기업이 미국에 이어 2위로 그 배경에는 일본 국내 수요 감소에 따른 위기감임
 - 텐츠는 약 4,000억엔을 투입하여 영국의 광고 대기업인 이지스그룹을 매수
 - 이온은 프랑스 카르푸로부터 말레이시아사업을 매수, 아시아이전을 가속화
- 60조엔의 풍부한 유동성자금과 엔고로 엔화환산 매수액이 감소한 점도 기업들을 부추기고 있음
 - 소프트뱅크는 미국기업을 매수하기에 호기라고 판단, 1조 5,000억엔을 넘는 미국 휴대전화 대기업을 매수
- 전략지역인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리스크 대응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가을부터 감소, 연간 작년수준에 그침
 - 한편, 인도네시아기업의 매수는 19건으로 작년의 2배.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각각 1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 최근에는 엔저로 반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일본기업들의 해외전개 의욕이 강하다는 지적

□ 미쯔비시레이온, 한국 SK케미컬과 탄소섬유분야에서 사업제휴

- 미쯔비시레이온이 한국 SK케미컬과 탄소섬유분야에서 사업제휴
 - 섬유사와 수지 등 중간부재 분야의 저가품에 강한 SK에 골프샤프트용 등 중간부재 생산을 위탁
 - 미쯔비시레이온은 여타 기업과도 제휴관계를 맺어 섬유사생산만이 아니고 가공수요도 흡수하겠다는 것
- 이외에도 테니스라켓 등도 포함한 스포츠용품이나 풍력발전 날개용 부재생산을 위탁, 부재의 공동개발도 추진
 - 스포츠용도 및 풍력발전 날개 시장은 공급과다로 가격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중간부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SK케미컬과 제휴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
- 철보다 가볍고 강한 탄소섬유는 금속의 대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수요가 2020년에 2011년의 4배 가까운 약 14만톤으로 증가할 전망
- 미쯔비시레이온은 현재, 탄소섬유의 판매량에서 10%를 점하고 있으며 토레이, 테이진에 이어 세계 3위.
 - 그러나 중간가공 및 최종제품의 생산에 의한 수요흡수가 과제로 되고 있어 앞으로는 제휴를 활용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임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석유자원개발	2012.12.15	오일샌드	캐나다	직접투자/현지생산, 투자규모 약 1,200억엔
타카기마야	2012.12.15	상업시설	베트남 /사이공센터	직접투자/출자비율 22.7%, 출자규모 수십억엔
호시자키전기	2012.12.15	냉장고	인도/웨스턴리 프리지레이션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액 23억엔, 주식의 50.01% 취득
쓰바키모토체인	2012.12.15	자동차부품	멕시코	직접투자/공장신설, 투자규모 약 8억엔
요코하마고무	2012.12.16	광산용타이어	중국 /산둥홍달운태	기술공여/요코하마타이어 브 랜드로 판매
야스카와전기	2012.12.16	산업용로봇	베트남	직접투자/판매현지법인 설립
미쓰비시레이온	2012.12.17	탄소섬유	한국/SK케미컬	기업간제휴/생산위탁
미쓰이물산	2012.12.17	재생에너지	캐나다 /GDF스에즈	자본제휴/출자비율 30%, 투자규모 수백억엔대
동해고무공업	2012.12.17	자동차부품	이탈리아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액 약 69억엔
이데미츠코산	2012.12.18	연료유 판매	호주/후리덤에 너지홀딩스	직접투자/기업매수, 주식 100% 취득
스미토모상사	2012.12.18	발전설비	인도네시아 /PT안탐	수주/수주가액 약 120억엔
스미토모생명 보험	2012.12.18	보험	베트남	직접투자/SBC보유주식의 18% 취득, 투자규모 약 300억엔
미쓰비시중공업	2012.12.19	화학플랜트	러시아 /가스프롬자회사	수주/수주가액 약 300억엔
미쓰비시상사	2012.12.19	새우양식	태국/TUF	자본제휴/합작기업 설립, 출자 비율 49%, 투자규모 30억엔
마쓰다	2012.12.20	변속기	태국	직접투자/공장신설, 투자규모 약 200억엔
일본통운	2012.12.21	물류	이집트	직접투자/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1억8,000만엔
히타치제작소	2012.12.21	철도시스템	영국/레일웨이 엔지니어링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액 약 35억엔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 (1)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의 발전 : 무역·국제수지의 구조적변화와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회 보고자료』 재무종합정책연구소, 12월15일

*출처:http://www.mof.go.jp/pri/research/conference/zk097/zk097_05.pdf

- (2) 『글로벌화와 한중일 자동차산업(2)』 일본종합연구소, 12월18일

*출처:<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6496.pdf>

- (3) 『일본경제전망 : 아베신정권에 요구되는 경제정책 : 경제재생의 4가지 포인트』 다이와종합연구소, 12월19일

*출처: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outlook/monthly/20121218_006598.pdf

- (4) 『엔고시정은 어디까지 진행되나』 일본경제연구센터, 12월19일

*출처:<http://www.jcer.or.jp/column/iwata/index430.html>

- (5) 『무역·경상수지구조의 변화와 일본형 투자입국모델』 재무종합정책연구소, 12월19일

*출처:http://www.mof.go.jp/pri/research/conference/zk097/zk097_02.pdf

- (6) 『태양광발전 이용에 관한 조사』 지역유통경제연구소, 12월21일

*출처:http://www.dk.or.jp/?action=cabinet2_action_main_download&block_id=53&room_id=1&cabinet2_id=5&file_id=187&upload_id=347